WEEKLY IBK 경제브리프
(542호) 2018-01-30
IBK경제연구소

불황을 모르고 성장하는 엔젤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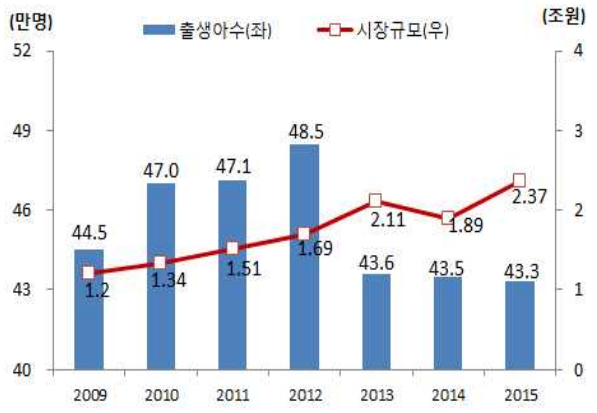
※ **엔젤산업** : 0~14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가계 총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엔젤계수(angel coefficient)에서 유래된 말

□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며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으나,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으로 엔젤산업은 계속해서 성장

○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, 부모가 아이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증가하면서 국내 유아용품 시장규모는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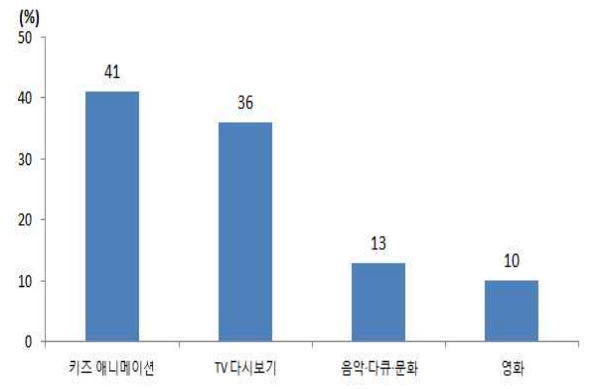
-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와 친조부모, 외조부모, 삼촌, 이모 등 8명의 어른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뜻의 '에잇포켓'이라는 신조어가 유행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손자, 손녀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으며, 수입이 많은 결혼하지 않은 이모, 삼촌 등이 가세하며 엔젤산업의 성장을 가속화

< 유아용품 시장규모 및 출생아수 >



자료 : 유안타증권

< KT 올레TV VOD 이용 점유율 >



주 : '17년 8월 기준, 자료 : KT

□ 엔젤산업의 성장과 함께 키즈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으며,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 中

○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, 조부모의 육아가 늘어나면서 육아의 중요한 수단으로 키즈 콘텐츠가 성장

- (KT 올레TV) IPTV 시청자의 주문형 비디오(VOD) 이용에서 키즈 애니메이션 분야는 TV다시보기를 제치고 1위를 차지

- (CJ E&M) 자사 파트너 채널의 4년간의 누적 조회수 253억회를 장르별로 분석한 결과, 키즈 분야 비중이 34.5%로 게임(26.1%)를 앞지르고 1위로 나타남

○ 디지털 플랫폼은 국내 키즈 콘텐츠 기업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으며,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용이

- (캐리소프트) YouTube에서 '캐리와 장난감 친구들', '엘리가 간다', '캐리앤송' 등 9개 채널을 운영하며 '16년 매출 51억원, 당기순이익 16억원 기록

- (스마트스터디) '핑크퐁' 앱은 글로벌 다운로드가 1억 5,000만건에 달하고 전세계 112개국에서 교육 카테고리 1위를 기록

□ 통신사들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주력

○ 2015년 국내 만 4~12세 아동 중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보급률은 5%로 추산되며, 2025년까지 53%로 확대될 전망(KT경제경영연구소)

< 라인 키즈폰2 >	< 준3 >	< 쥬니버 토키 >
		
KT	SKT	LG U+

□ (시사점)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젤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(작성자 : 중소기업팀 계장 이지현 jeehyunlee27@ibk.co.kr / ☎02-729-6623)